



독도를 지키려는

독도소식지 제14호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발행일 : 2013년 9월 1일

604-812 부산시 사하구 과정로 263

TEL, FAX, 겸용 051-782-9174

E-mail, ds5ean@naver.com

H P, 010-6504-6510

계간14호 발행자 편집자: 이상훈 /부산광역시명장로 63번 다길 35 /신고번호: 동래 바00001/신고일 2012.05.18./ 인쇄(주)동아인업 (051)807-0600

독도소식지 14호를 내면서

여러분들의 독도주인이니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 독도에 무관심은 독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회원 가입 하면 독도 지키는 운동에 큰 힘이 됩니다. 뭉치자. 일본에게 당하지 말자. -편집자-

독도사수연합회 성명서

8.15를 맞으며 우리 독도사수연합회는 일본의 망동을 규탄한다. 현재 일본은 군사대국화를 위하여 그들의 헌법 9조를 고치려고 한다. 군사대국화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혼란하여 침략할 명분이 있으면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제9조 ①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방기(放棄)한다. ②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기타의 전력을 보지(保持)하지 아니한다.」 위의 일본 헌법 9조를 고쳐서 다른 나라 분쟁에도 개입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니 뭐니 하면서 일본극우 정치인들이 야단들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 한 목소리로 일본의 망동을 규탄하는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국제 정의를 무시하며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 육일승천기 사용 공식화 추진, 준 항공모함 이즈모 진수식 등을 꾸준히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종군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보상 요구를 외면하고, 최근에는 한 술 더 떠 나치식 개헌을 한다고 한다. 일본은 8.15를 맞이하여 침략행위에 대한 반성은커녕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칠 수 있는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 일본 각료들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예정이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억지주장에 대하여 우리는 한 목소리로 일본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 우리는 강경한 대일 메시지와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과 우경화 저지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 비록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에 동참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부족하고 헛발질만 계속하는 것 같다. 일본 주오(中央) 대학 명예교수인 이토 나리히코(伊藤成彦, 74)는 인터뷰에서 “이제는 일본 민주화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하고, 21세기 새로운 동북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내자”면서 일본의 개헌 저지를 위한 아시아 국가들의 연대를 역설했다. 우리는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 사절을 보내서 일본의 역사 인식과 신사참배 위안부 문제들을 공동대처해야 할 것이다.

독도문제에 있어서도 경제문제보다 영토문제를 우선으로 봐야한다. 우리 정부가 독도에 건설하려는 독도해양과학기지도 건설하고 독도관리사무소도 세우며 방파제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찾는 길이다. 일본은 망동을 중단하고 인류의 참된 가치에 동참하길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2013. 08. 15.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일동

독도 영화 '놈이 온다' 제작발표회

기사입력 2013-05-11 17:26

독도 문제를 다룬 영화 '놈이 온다'가 오는 12월 개봉을 앞두고 제작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영화 '놈이 온다'는 일본보수 극우파가 독도를 무단 점거하자 국정원 실장과 국민방위대, 해양경찰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독도를 되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삼포로 가는길, 고교알개, 만주 등을 기획 제작한 신승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배우 원기준, 이원종, 양미경, 임현식 등이 출연합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독도를 지키자고 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지켜지나? 를 생각해야 합니다. 독도를 지킬 방법을 말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영화에는 일본 극우파가 독도를 무단 점거 하고 우리 군

관민이 힘을 모아 독도를 되찾는다는 것 같습니다. 영화대로 된다면 우리군관민이 독도를 되찾을 때 사상자가 많이 날 것으로 봅니다. 자연적으로 큰 분쟁이 되어 국제문제가 되고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국제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일본극우파가 독도로 상륙 하려 할 때 사상자가 많이 나고 큰 분쟁으로 국제재판을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국제재판에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독도를 지키는 길이라고 봅니다. 독도 연구와, 독도유인도, 독도를 관광지개발과 국제사회에 홍보, 독도수역을 되찾아야 국제재판에 유리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anadok/N4Y/250 독도사수연합회 회장 독도 이상훈

그들을 쪽발이라 부를 때

1990년대 초 광복동 어느 원탁형의 가라오케(요즘은 노래방)에서 한쪽엔 한국 사람들이 다른 한쪽에는 일본관광객들이 자리를 잡고 노래 실력을 뽐내기라도 하듯 신 바람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일본 사람들도 모두 손뼉을 치며 흥겹게 호응을 했으나 일본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한국 사람들의 입에서 '쪽발이' 라고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후 나는 일본 NHK 연수차 일본 동경에 간 일이 있었다. 1주일 동안 머물면서 낮에는 일본방송의 전반적인 내용을 경청하고 저녁에는 동경거리의 내면적인 풍경을 살펴보고 일본사람들의 풍속도를 알아보고자 음식점이며 시장골목이며 술집이며 백화점등을 누비기도 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일행 3명이 어울려 일본의 가라오케를 들렀다. 그곳에 있었던 일본사람들도 우리와 달리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들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우리도 맥주를 시켜놓고 노래를 부르기 위해 종업원한테 한국 노래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설마하고 나그네설움을 신청 했었는데 즉시 종업원은 그 곡을 찾아 찾아왔다. 1.2절을 불렀다. 거기서 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 했다. 우리가 신나게 한국의 대중가요를 불러도 일본사람들이 뒤에서 우리와 달리 '조센진' 이라는 비아냥대는 소리 없이 박수를 치고 따라 부르며 심지어 우리의 노래를 듣고 있던 어떤 일본인은 우리에게 맥주 1박스를 보내주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어느 노래를 불러달라고 신청 까지 했었다. 그들이 신청한 노래 우리대중가요 전부가 다 있다 시피 있다, 부산항예를 부를 때는 그곳에 있었던 일본인 들이 모두 따라 부르기도 했었다.

그 자리에는 나이든 일본인들도 있었지만 젊은이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나는 그곳을 나오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왜 우리들에게 맥주를 박스로 보내주고 그들의 노래보다도 우리에게 노래를 더 부르게 기회를 줬으며 신청곡은 물론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야유는커녕 박수와 함께 심지어 따라 불렀을까하는 점이 바로 그 것이었다. 이튿날 나는 한 재일 교포를 만나 이점을 물어보고 기절초풍 할 것 같은 현

기증이 일어났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일본위정자들이 일본 젊은이들에게 언젠가는 다시 한국을 지배할 날이 올 줄 모르니 한국에 대해서 민족성이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밖에 대중가요도 실지 한국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해 많이 익히라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전날 밤 가라오케에서 있었던 일이 몹시 수치스럽고 한편으로는 치가 떨리기도 했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을 지금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치가 떨릴 일이 또 하나 있다. 2004년 5월 평화사절단으로 일본에가 후쿠오카에서 가정과 사회, 국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강의를 듣고 있었을 때였다. 1주일간 머무는 동안 일본의 극우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검은 제복과 검은 머리띠에 검은 차를 앞세워 죽도(독도)는 자가네 땅이라고 쓴 어깨띠에다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과 교통에 방해됨이 없이 질서 정연하게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어느 교포 저널리스트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저 녀석들이 독도를 저희들 땅이라고 우기는 것은 독도를 먹고 그다음에 울릉도를 발판으로 다시 한국을 자기네 손에 넣기 위한 침략근성을 버리지 못한 전초전이라고, 그 당시 평화사절단으로 일본에 있었던 우리들은 이 말을 듣고 주먹을 불끈 쥔 체 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했었다. 그 말의 사실 여부를 떠나 요즘 극우파 일본정치인들의 망언과 신사참배 과거의 반성 없이 남의나라를 침략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 하려는 움직임에 헌법을 개정해 다시 군국주의로 돌아가려는 발로는 우리로서 극히 염려스럽고 경계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고 본다. 우리가 노래방에서 일본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거리에 일본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쪽발이라고 비아냥댔 때 일본사람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척 하며 우리의 심장 내부까지 파고들어 자기네들의 속셈을 차리려고 온갖 만행을 부리고 있는 그들의 2중적인 근성을 우리 모두는 똑바로 보고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줄 안다.



김 병 래(시인, 수필가)
전 KBS 부산방송 아나운서부장

독도사수연합회 활동을 보세요.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신다면 독도는 지켜집니다.



이사부 컨퍼런스 전문가 발표후 기념사진



분야별 발표에서 독도수호 분과 대표자들



종합토론을 마치고 독도운동 하는 단체장들



독도에서 예술행사 단원들 그 앞에 본회 현수막



울릉도에서 독도사수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이만기 교수 독도리장님 부부 독도사수연합회장

독도사수연합회 고문 곽현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도사수연합회 고문 곽현옥입니다. 저는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2동에서 약국을 경영하면서 이상훈 회장이 독도운동을 하는 것을 알고 이상훈 회장이 애국자이구나 생각한 했습니다. 이웃에 살면서 생각만 하다가 이상훈 회장이 독도운동에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다는 말을 하기에 회비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훈 회장이 고문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사양 했지만 억지로 맡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독도 주변의 바다는 공동수역이 되어 있고 다른 나라라는 일본 땅으로 인식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도가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고 후일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않게 독도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회비를 내며 홍보도 합니다. 다른 단체는 지키자는 소리는 있어도 논리 있게 세부적으로 독도를 지킬 방법을 제시하는 곳은 별로 없고 독도사수연합회는 지킬 방법을 세부적으로 논리 있게 활동하며 열정을 가지신 동지 분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나라를 위하고 애국을 하실 분들은 함께 합시다. 하늘나라 가서라도 바보 조상 소리는 듣지 말도록 노력 합시다. 2011년 3월 5일

후원금 주신분

최민균	부산동구좌천1동	5,000원
한성국	부산진구개금3동반도A	12,000원
김차순	부산시수영구광안1동	5,000원
이영재	부산시동래구명장동	50,000원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입니다.

일본은 독도를 국제재판을 해서 뺏으려고 합니다. 일본이 국제재판 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 하여 국제재판을 안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래처럼 될 쥌.....

지난 20 세기말부터 동양 국가들간의 국제분쟁 특히 도서 영유권 분쟁들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확립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이 임의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재판소규정만을 의지하여 독도문제에 관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사법적인 해결 방식을 맹목적으로 언제까지나 거부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실제로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분쟁 당사국의 의도와는 별도로 국제사법기관이나 국제사회가 분쟁 해결에 개입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가지 제도로 열어 놓고 있다. 먼저 “확대 관할권 제도”라는 관행이 있다. 확대 관할권 제도라는 것은 당초에 국제사법 절차에 제소할 의사가 없는 분쟁 당사국이 상대방 당사국의 일방적인 제소가 있는 이후, 국제사회에 있어서 복잡한 국제 정치적 관계의 진전과정에서 “수동적 당사자의 비정형적 동의”가 추정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제사법 재판소의 재판 관할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을 말 한다. 지금까지 이러한 과정으로 분쟁 당사국의 당초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결국 국제사법 재판소에 분쟁이 제소 된 예는 상당히 많다. 1928년 상설 국제사법 재판소가 재판한 Minority in Upper Silesia Case 1946년 국제사법 재판소가 첫 번째로 다룬 쟁송 사건인 Corfu Channel Case 1951년 국제사법 재판소가 판결한 Haya de la Torre Case 등을 김영구 국제 법 교수님은 말씀 하십니다.

독도사수연합회가 하는 일

독도가 위험하며 일본의 침략을 방지 하자고 독도소식지를 분기별로 발행하며 전단지도 만들어 무료 배포 합니다. 일본이 독도 날 행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합니다. 국제법적으로 근거를 알리려고 고종황제 칙령41호 행사를 합니다. 국제적 홍보를 위하여 10개 국어로 전시물을 만들었는데 김해국제공항 관계자가 허락을 안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1.독도연구를 많이 하도록. 2. 독도에 자유입도와 주거자유 하도록 3. 독도를 관광지로 개발하여 국내외에 많이 알리도록. 4. 독도의용수비대를 국가 최고유공자로 모시도록. 5. 잘못 뺏어진 신 한.일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바다를 찾도록. 서명운동 합니다. 이상 5가지를 정부가 하면 독도는 지켜질 것입니다. 일본의 눈치나 본 역대 정부는 독도문제를 국제법적으로 불리하게 만든 것입니다. 국제 법으로 유리하게 만듭시다.

독도사수연합회에 앞장서는 분들

학술고문  김영구 교수	고문  곽현옥 약사	고문  안준식방범대장	협력고문  황성일 사장	자문  문병준 교수	홍보대사  서희 가수	회장  독도 이상훈
부회장  김영희	운영위원장  윤승태	인천지회장  김상열	부산지회장  박대희	충북지회장  조남용	운영위원  한동락	운영위원  권재진

『1910년 韓日병합조약』 유효론과 獨島 領有權 문제11편



려해연구소
RYEO HAE INSTITUTE
김영구 교수의 해양법포럼

점령 통치 주체인 미국의 정책적인 비호(庇護)와 한국 전쟁이 가져다 준 경제적 호기(好機)를 십분 활용하여 종전 이후 장기 집권한 요시다 시게루 정부는 10년도 안 되는 기간에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성장시켰다. 완전히 파괴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전쟁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일본의 공업적 기반과 경제적 잠재력이 완전히 되살아 난 것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하여 일취월장(日就月將)하는 신기술의 첨병(尖兵)으로 일본은 새로운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아도 일본의 철저하고 혹독한 식민정책으로 일본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던 빈약한 공업적 기반마저 한국전쟁의 과정 중 철저히 파괴되고 그 경제적 잠재력은 고갈되어 구조적으로 일본에 예속된 경제적 빈국(貧國)으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전쟁 책임을 다시 묻고 전쟁 배상금 조로 일본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얻어내려던 박정희대통령이일본의완강한전쟁무책임론에몰려서결국 '독립축하금' 조로나마 이른바 「청구권 자금」을 겨우 받아낸 것을 이제 와서 한가롭게 비난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에 예속된 경제적 빈국이라는 한국의 위상은 경제 외적인 분야에서까지 일본과 미국의 정책적인 의도에 휘말리는 약한 입장으로 내몰리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제관계적 상황을 잘 아는 일본의 젊은 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그들의 선각자인 요시다 쇼인(吉田松蔭)이나 후쿠자와 유키찌(福澤諭吉)의 가르침을 되 색이면서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고스

란히 물려받는 것을 단순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나무랄 수만은 없을 것 이다.수양(修養)이 덜된 인간은 본래 어느 정도 강한 자에게는 너그럽고 약한 자에게는 가혹하게 마련인데 특히 일본 사람들은 유난히 약한 자에게 가열(苛烈)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는 편이므로 유독 1960~70년대 젊은이들만이 기특하게도 약한 한국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잘 배우지도 못한 과거사 문제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아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일본 전후 제2 세대가 특히 한국에 대해서 거의 일본 제국주의 시대애나 있었던 군국주의적인 자존심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우월감을 회복하고 철저한 전쟁 무 책임론에 몰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말하자면 이러한 ‘경제적 요인’이 있었다. 과거사 문제에 관해, 일본은 1980년대부터 차츰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표명하기에 이른다.좀더 정확히 말하면, 1980년대 “유감 표명”에서 1990년대 이후에 와서는 “사죄와 반성”으로 바뀌고 있다. 점령주체였던 미국이 편의 주의적으로 외면해 버린 전후 처리 조치로 인한 문제들 중 종전 이후 한-중-일 3국간에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는 “식민주의의 청산과 극복이라는 과제”를 전면으로 부인(否認)해온 일본 역사교과서 「왜국」과 「군대위안부 문제」를 우선 들 수 있다. 미국이 편의 주의적으로 외면해 버린 전후 처리 조치로 다음 호에 계속 이 논문은 독도사수연합회 교수논문을 클릭 하시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극우파 센카쿠 근접...中감시선 대거 출동(종합)

중·일간 긴장 다시 고조...일본, 중국대사 소환(도쿄·서울=연합뉴스) 이충원 특파원 이한승 기자 = 일본 극우파 조직 회원들이 23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고 이에 중국 해양감시선들이 해당 해역으로 출동, 중·일간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일본 극우파 80여명을 실은 배 10척은 이날 오전 이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인근 해상에 도착했다. 이들은 일본 해양경찰 함선 10척의 호위를 받고 있다. 배에 탄 일본인은 '간바레 닛폰(힘내라 일본)'이라는 극우단체 회원들이다. 이 단체는 이번 항해가 센카쿠 주변의 어장을 탐사 하려는 것이며 섬 상륙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해양감시선 8척을 센카쿠 열도 부근 일본측 영해에 진입시켰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오전 7시20분~오전 8시25분 사이 중국 감시선이 잇달아 센카쿠 부근 12해리(22km) 영해로 들어갔다. 또 중국 어업감시선 2척도 영해 바깥쪽 접속수역(12~24해리=22~44km)에서 항해하고 있어 추가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이 지난해 9월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 이후 중국 감시선이 센카쿠 영해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40번째다. 진입 척수는 이번이 가장 많다. 그동안 1~5척이 들어갔을 뿐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센카쿠 해역에서 시위를 하려는 일본 극우파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으로 이번 사건은 양국 사이의 갈등을 다시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간바레 닛폰은 작년 8월에도 상륙 계획이 없다



중국 감시선, 8척 센카쿠 영해 진입
(이사가키(일본 오키나와현) 교도=연합뉴스)중국 해양감시선 '해감 66호'(밑에서 2번째)와 일본 해상보안청 경비함 이사가키호(밑에서 3번째)가 23일 오전 10시9분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일본측 영해 경계선 부근을 항해하고 있다. 맨 아래 어선은 일본 우익 단체인 '간바레 닛폰'(힘내라 일본) 회원들을 태운 것으로 추정된다. chungwon@yna.co.kr

면서 센카쿠 열도로 배를 띄웠지만 회원 10여명이 섬에 기습 상륙했고, 중국에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일 시위가 일어났다. 작년 9월 센카쿠 열도를 실효 지배하던 일본은 섬을 국유화하면서 영토 분쟁을 촉발했다. 중국과 일본 민족주의자들은 이후 경쟁적으로 섬에 상륙하거나 근해에 접근하는 시위를 벌여 왔다. 이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국 감시선의 영해 진입과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총리 등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가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중국의 의도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인과관계는 없지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은 이날 중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chungwon@yna.co.kr jesus786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다케시마는 일본 땅"... 끊이지 않는 일본의 독도 도발

기사입력 2013-08-15 08:28

[앵커]일본의 자체 조사이기는 하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10명 중 6명꼴입니다. 방위백서 같은 정부 문헌과 교과서 검정 등을 통해 독도가 자기들 땅이라고 우겨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명박 / 전 대통령(지난해 8월10일)〉 "독도를 자연 그대로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국민의 후손들에게도 자랑거리로 남는 거죠" 이후 일본은 망언과 망동을 이어가며 독도 도발 수위를 더욱 높여왔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이 대통령의 방문은 불법 상륙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맡기자고 하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합니다.〈노다 요시히코 / 전 일본 총리(지난해 8월24일)〉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 불퇴전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입니다." 올해 초 취임한 아베 총리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국내외 홍보 전략을 세우라고 지시합니다. 총리실 직속으로 영토 주권 문제 전문가 기구도 만들었습니다.아베 신조 총리는 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일본의 입장과 생각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국내외에 침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11일간 일본 국민 3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조사 결과를 이달 초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넘게 '다케시마' 즉 독도를 안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61%가 독도가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말했습니다.한국이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등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는 응답도 63%나 됐습니다. 야마모토 이치타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향후 독도에 관해 일본인들이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은 방위백서에 9년째 실렸고 올해 외교청서에도 어김 없이 등장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자위대 병력이 가상 섬에 상륙하는 훈련까지 실시하며 독도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뉴스Y 배삼진입니다.(끝)<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일 독도문제가 커진다면?

약 50년 전에는 일본 고위공무원이 다케시마 일본 땅 하면 좌천이 되거나 공직을 그만 두게 되었다. 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에는 우리수역을 공동수역으로 만들었으며 일본 방위백서에 9년째 일본영토로 주장하고 있다. 독도문제는 점점 커지고 있다.조선 박살을 내지 못해서 점점 공격을 당하고 있다.우리도 공격을 하자. 사람이 많이 살도록 만들어 사는 것이 공격이다. <독도사수연합회장 독도 이상훈>

국제공항에 각국어로 독도 자료 홍보하게 하라.

한국공항공사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독도를 지키는 운동을 합니다. 2000년에 본격도 독도로 이전하고 혼신의 정성을 다하여 때로는 생업도 그만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국제재판에 저서 일본에게 빼앗긴다는 생각입니다. 독도를 외국인들에게 우리 땅인 근거를 알리기 위하여 전시물을 10개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크기는 가로 60cm 세로 160cm입니다. 김해국제공항에 전시를 하려다 거부당하여 못 하고 있습니다. 전시물 내용은 첨부 파일 한글을 첨부 합니다. 영어.일본어.중국어.러시아어.독일어.프랑스어.이태리어.스페인어.아랍어.가 있습니다. 허락 하시면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김해 국제공항에 전시 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전시기간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참고자료는 <http://dokdomart.byus.net/index4.htm> 있습니다. 하늘 길을 운영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죄송합니다.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회장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051-782-9174 (전화전송 겸용)

일본은 독도 뺏으려 기를 쓰고 한국이 불법점거했다고 국제적 홍보하고 우리는 우리 땅만 외치면 독도 지켜지나? 우리도 우리 땅 근거를 외국인 보는 곳에서 홍보하자. 독도 이상훈

독도소식지 14호의 편집을 끝내면서 우리는 독도를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힘 이 모자랍니다. 힘을 보태 주세요. 독도소식지는 인터넷으로 창간호부터 14호 까지 볼 수 있습니다. 편집을 도와주신 황성일사장님 감사드립니다. 독도 이상훈 010-6504-6510 ds5ean@naver.com
후원 하실 분 법인통장 우체국 601229-01-002084 독도사수연합회

독도사수연합회 회원 가입 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		
전화 (주택)	(직장)	(휴대폰)	
주소 (주택)	우편번호 :		
(직장)	우편번호 :		
직업(명)	소속단체 :		
E-mail			
참고로 기록 합니다.			
년납 ()	월납 ()	회비 납부	자동이체 ()
자원봉사 =년 회 (할 수 있음) (할 수 없음)		수납금 : 현금 ()	

"우리 땅 을 지키기 위하여 조금의 힘이라도 보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독도사수연합회장 귀하
참고사항: 회비는 월1,000원 이상으로 자동 이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회원은1만원 이상)
(법인통장)우체국 601229-01-002084 예금주: 독도사수연합회
우편번호: 607-809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전화: 051-782-9174. 독도 이상훈 손전화 010-6504-651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E-mail : ds5ean@naver.com lsh54a@hanmail.net 보내세요.

아래 서명운동을 하는 이유

일본은 국제재판을 해서 독도를 뺏으려 한다. 국제재판을 안하면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때를 생각해서 국제재판에 이기려면 독도연구를 많이 해야 이길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독도의용수비대를 잘 모셔야 이기며 독도바다가 공동수역이면 재판에 더욱 불리하다. 정부가 하면 우리국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안 하니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여론이 되면 정부는 투표 할 때 표를 의식해서 여론 따라 정책을 바꿀 것이다. 서명 많이 하면 여론이 된다. 해도 안 된다는 생각은 버리고 해 보자. 편집자

독도를 지키기 위한 청원서

(아래 서명인은 아래사항을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청원 합니다.)

- 1. 독도박물관을 국립박물관으로 승격하여 독도연구비 투자를 많이 하십시오.
- 2. 우리 땅 독도의 자유로운 입도 보장과 독도의 주거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 3. 독도의 관광지개발을 통하여 관광수입과 함께 국 내 · 외에 홍보 해 주십시오.
- 4. 독도를 지킨 의용수비대를 국가최고유공자로 모시고 독도수비의 공을 기려주십시오.
- 5. 잘못 맺어진 신 한 · 일 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배타적경제수역주권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순번	성명	주소	서명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독도사수연합회 <http://dokdomk.com> (서명운동자)
네이버독도사수대 <http://cafe.naver.com/docdoinkorea.cafe>
보낼곳 607-809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3번 다길 35(명장동)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477-16)
독도사수연합회 E-mail : ds5ean@naver.com HP : 010-6504-6510 독도 이상훈